

■ KLPGA 인비테이셔널 내일 개막



지난달 30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CC에서 열린 하이원컵 캐리티여자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서희경(왼쪽)이 신지애와 패팅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지애·서희경 3주만에 재대결

신 3년 연속 상금왕 굳히거나  
서 사상 첫 4주연속 우승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와 후반기 돌풍의 핵 서희경(22·하이마트)이 3주만에 SK에서 다시 인비테이셔널에서 다시 대결한다.

신지애는 해외와 국내를 오가면서도 올 시즌 전반기에만 4승을 올리며 최강임을 과시했지만 후반기 돌풍의 핵 서희경을 만났다. 서희경은 후반기 대회인 하이원컵 SBS 캐리티오픈,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빈하이레이디스 오픈까지 연달아 우승하며 신지애의 3년 연속 상금왕 달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19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BA비스타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서희경이 다시 정상에 오르면 KLPGA 사상 첫 4주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또한 총상금 4억원에 우승상금 1억원이 걸린 이 대회에서 서희경이 우승하고 신지애가 5위 밖으로 밀린다면 상금 레이스에서 서희경의 역전도 가능하다. 이처럼 신지애와 서희경에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지만 정작 두 선수는 태연하다.

서희경은 "4주 연속 우승이나 상금왕에 신경은 좀 쓰인다"면서도 "내가 우승하는 동안 지애가 일본대회에 출전했으니 상금 격차가 좁혀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대회에 마치고 곧바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서희경은 "괴곤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정상 컨디션을 찾았다. 후회없는 경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경은 대회가 열리는 BA비스타 골프장을 처음 찾았다고 말했다.

신지애도 "같이 연습도 했던 언니(서희경)가 잘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 앞으로 많은 대회가 남아 있어 이번 대회가 특별하지는 않다"며 "내년에 외국으로 진출하기 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또 두차례 일본대회 성적에 대해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 두번도 괜찮은 성적"이라며 편안하게 생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다슬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하늘(20·코오롱), 유소연(18·하이마트), 홍란(22·민심웨어) 등을 비롯해 미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 홍진주(24·SK에너지), 박인비(20·SK텔레콤)도 출전한다.



위성미가 1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LPGA 캘리포니아 토너먼트(O 스쿨) 1라운드중 14번째 홀에서 드라이브 샷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선주 6언더 선두... 위성미 공동 8위

LPGA Q스쿨 1R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4승을 거둔 안선주(21·하이마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캘리포니아스쿨 지역에선 1라운드에서 선두에 나섰다.

안선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6언더파 66타를 쳐 순

위표 맨 윗자리를 꿰찼다. 2006년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금왕 오야마 시호(일본) 등이 3언더파 69타를 쳐 안선주에 3타 뒤진 공동2위에 올랐다. 관심을 모았던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는 2언더파 70타로 공동8위를 달렸다.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지는 이번 지역 예선은 163명이 참가했으며 상위 30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현대씨름단 연맹 탈퇴키로

'초청팀' 자격으로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해온 프로씨름단 현대씨름단 소속이 한국씨름연맹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씨름단 김철규 감독은 17일 "씨름단 내부적으로 씨름연맹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달 중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씨름단이 탈퇴하면 한국씨름연맹은 회원사가 한 팀도 남지 않게 돼 존폐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프로대회가 열리지 못하자 현대씨름단은 작년 6월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당진장사대회부터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해 왔다.

지난달 씨름협회 소속팀들은 "현대가 초청팀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현대씨름단은 연맹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프로농구 챔피언전

19일 오사카·28일 원주서

한국과 일본 프로농구 챔피언전 맞대결이 펼쳐진다.

한국농구연맹(KBL)과 일본프로농구연맹(BJ리그) 지난 시즌 우승 팀들인 원주 동부 와 오사카 에베사가 19일(일본 오사카)과 28일(원주), 두 나라를 오가며 '2008 동부 프로이 한일 프로농구 챔피언전'을 갖는다.



18일(목) ▲2008 메이저리그(미네소타 : 클리블랜드) (07 : 55·XSPORTS)  
▲2008 프로야구(기아 : 삼성) (18 : 20·XSPORTS·SBS스포츠), (SK : LG) (18 : 20·KBS N SPORTS·MBC ESPN)



테르노 골리앗 최홍만이 수술 후 첫 복귀 경기를 앞두고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정도회관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다. 이름을 새긴 어깨 문신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더 강해진 모습 보여주겠다”

27일 K-1 대회 앞둔 최홍만

지난 6월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최홍만(28)이 27일 국내서 열린 K-1 대회 출전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홍만은 17일 K-1 주최사 FEG 한국 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오랜만에 치르는 경기인 만큼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면서 "긴 시간 공백이 있었지만 링 위에서 더욱 강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지 석 달이 된 시점에서 K-1에 출전하게 된 그는 또 수술 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다"면서 "커다란 산을 넘는 기분이다. 힘도 향상됐고 한층 더 강해진 것을 실감하고 있

다"고 대답했다.

지난 해 K-1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던 바다 하리(24·모로코)와 맞대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리는 강하고 대단한 선수다. 하지만 한 방으로 쓰러뜨리겠다. 그것이 최고다. 그 한 방은 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월 간 공백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휴식기간에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버려온 생각이 많이 들었다.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강했다. 빨리 링 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했다.

최홍만은 지난 해 12월 말 포도로에 벨리아넬로(32·러시아)에게 1라운드 TKO로 패한 뒤 9개월간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onam University Administrative College. Includes text like '신지애 토지시도 리얼이 개발라' and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9기 원생모집'.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seong Gongin Jeonggasa. Includes text like '대승공인중개사' and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부동산. Includes text like '대인동삼일부동산' and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ongin Jeonggasa. Includes text like '일가공인중개사' and '상가건물 매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Jeongmaekon Seolting. Includes text like '법원경매전문' and 'GG경매컨설팅(주)'.